

#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 지원

농진청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 행사 추진

22일 복숭아 데이로 전주시 내 선별진료소 설치

병원 1곳에 복숭아 200세트 전달 예정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리마인드(Re Mind) 농산물 데이(day)' 캠페인을 추진한다.

'농산물 데이'는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 등이 소비확대와 홍보를 위해 시

작한 마케팅(판촉)에서 비롯된 것으로 3월 3일 '삼겹살데이'와 5월 2일 '오리데이' '오이데이' 6월 9일 '육우데이' 9월 9일 '구구데이' 등이 대표적이다.

농진청은 소비자들이 농축산물과 관련된 날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 캠페인을 통해 농산물 홍보와 나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월별 주요 농산물 데이를 정리한 포스터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에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덕분에 쉼' 캠페인과 연계해 지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농산물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펼친다.

1차로 실시하는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 캠페인은 '복숭아 데이(올해는 7월 20일)'로, 농진청은 전주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22일 전주시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병원 1곳에 복숭아 200세트(세트당 1.2kg)를 전달

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올해 연말까지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를 추진할 예정이며, 8월 8일 '포도데이'와 10월 22일 '배데이'에는 포도와 배 주산지인 경북과 울산 광역시에서 나눔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코로나19 대응 영농기술 지원반 노형일 반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 캠페인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 대상 나눔 행사가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확대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힘이 될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17일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 '이웃 배려 생활 속 거리두기는 내가 먼저'

국민연금, 산업안전협회와 코로나19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17일 대한산업안전협회(협회장 윤양배)와 공동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내가 먼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본부 및 전국 7개 지역본부와 대한산업안전협회 임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해 유동인구가 많은 KTX 역사 등에서 홍보용 리플렛과 마스크 7,000매를 배부했다.

공단은 그동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

을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총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환자 중 경증 환자를 격리시켜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와 해외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중 무(無)증상자를 14일간 격리하기 위한 김포 임시생활시설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안전문화 확산이 사회적인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무제한 NH포인트 적립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올바른 뉴 해브카드'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무제한 NH포인트 적립 혜택과 더불어 이용액이 높은 2개 영역을 자동으로 선정해 추가적립해주는 '올바른 NEW HAVE(뉴해브)카드'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바른 NEW HAVE카드는 신용(PLUS/일반)과 체크카드까지 총 3종으로 출시됐으며, '기본적립'과 '스마트적립' 서비스를 통해 NH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기본적립은 전월실적·적립한도 제한 없이 적립되며, 스마트적립은 6개 영역 중 이용금액이 높은 2개 영역에 대해 기본적립의 최대 5배까지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올바른 NEW HAVE 신용카드는 국내의 전 가맹점 이용액의 0.7%가 NH포인트로 무제한 기본 적립된다.

스마트적립은 많이 이용한 영역을 찾아 적립해주는 서비스로 당월 이용금액 1위·2위 영역에 대해 기본적립의 3배·2배를 자동으로 적용해 1위 영역은 총 2.1%, 2위 영역은 총 1.4%가 적립되며, PLUS등급은 스마트적립 혜택이 5배·3배로 확대돼 1위 영역은 총 3.5%, 2위 영역은 총 2.1%가 적립된다.

스마트적립 영역은 △온라인쇼핑/배달 앱 △오프라인쇼핑/잡화 △이동통신/구독 △대중교통/택시 △커피/편의점 △해의 등 6개 영역이며, 전월실적 40만원 이상 시 혜택이 제공되고 월 적립한도는 1만 NH포인트이다. 이와 함께 국제공항 라운지를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핸드인핸드' 동참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운동인 '핸드인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

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사회적기업연 구원에서 처음 시작한 운동이다. 지명을 받은 참가자가 사회적경제 상품을 구매해 다른 참가자에게 전달하면서 사회적경제와 코로나19 관련 응원문구를 SNS 등을 통해 알리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전국적으로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진원은 전남 중소기업진흥원 우천식 원장의 지명으로 참여하게 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구입은 e-store36.5+(www.sepp.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은 전주한울생활협동조합, 거시기장터(www.jpplaza.com), 라이프픽닉 전북여행(www.lifepick.com)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7일 JB문화공간에서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2지역본부 힐링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 강연부터 블랙코미디·통기타까지

전북은행, JB문화공간서 비즈니스클럽 2지역본부 힐링 워크숍

하이틴으로 조운호 대표·개그맨 전유성·가수 박강수 등 초청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7일 JB문화공간에서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2지역본부 힐링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2지역본부의 주관으로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친해진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실시했으며,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소독 등 개인 방역은 물론 차량 이동과 행사 전 일지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했다.

워크숍은 1부, 2부로 진행되었으며 전북은행 임직원과 2지역본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에서는 2지역본부 오동진 회장의 환영사를 비롯해, 서한국 전북은행 수석 부행

장의 축사, JB문화공간 성재환 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하이틴으로 대표이사 조운호 사장의 초청 강연, 2부에서는 블랙코미디의 대가 개그맨 전유성의 쇼드코, 통기타 가수 박강수의 힐링 콘서트가 진행돼 잠시나마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회원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다"며 "조운호 사장의 강연부터 전유성씨의 블랙 코미디, 박강수씨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약기가 되어 어우러진 통기타와 하모니가 공연까지 지친 일상에 에너지를 받고 갔다.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인 워크숍이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기안전공사, 승강기안전공단과 감사업무 협력강화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실(상임감사 함종걸)은 지난 18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감사업무 교류와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공사 함종걸 상임감사와 승강기안전공단 신동호 상임감사가 함께 한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안전·정령문화 확산과 내부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감사역량 제고를 위한 합동교육과 워크숍·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감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 교류 △감사 전문분야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함종걸 상임감사는 "양 기관 감사분야의 실질적 교류를 통해 감사업무 역량을 높이고, 안전과 정령문화 확산을 함께 주도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승강기안전공단 신동호 상임감사도 "교차감사와 합동감사를 통해 기관간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



(사진 왼쪽부터)전기안전공사 함종걸 상임감사, 승강기안전공단 신동호 상임감사

예방하는 감사, 성과있는 감사'를 추진해 갈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공사는 2020년 기획재정부 주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며 자체감사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공사는 이번 기관 간 감사업무 협약을 통해 감사 전문성과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통합플랫폼에 1839억원 투입

국민연금, 2024년까지

최적화된 연금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운영 중인 자격·부과관리, 연금 급여, 기금운용, 대외연계, 고객채널, 정보분석·보호 등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RFPI)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사업 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민

연금 제도와 기금운용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함으로써, 고객의 편의, 업무의 효율성, 기금운용 환경개선 등 업무관리 서비스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별 최적화된 연금서비스를 제공 △정보통신기술과 연금업무 전반이 융합돼 효율적 업무 처리 △지능형 기금운용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을 통한 국민 노후자금의 안전한 운용 등이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 김대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2025년 국민 중심의 디지털 공단으로 새롭게 전환되는 이번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중기 특성화고 참여학교 추가 선정

전북중기청, 진경여고·학산고 등 도내 2개 학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현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산학협약을 맺고 맞춤형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도내 2개교가 신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진경여자고등학교와 학산고등학교는 기존 운영 중인 9개교와 함께 지역기업·산업과 연계해 다양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중기부가 2008년부터 시작한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고졸 인력을 채용에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에서 맞춤형 교육, 현장문제 해결형 학습(팁프로젝트), 현장실습, 교원연수, 동아리활동, 중소기업 이해연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연 1~1억5,000만원 내외로 지원받게 되며, 자문기관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등도 컨설팅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운영 확대와 함께 도교육청 및 참여학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들과 중소기업 간 미스매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디지털시대로의 대전환점에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력으로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특성화고 전체 지정학교 현황 및 연차별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산학협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학교와 직접 협의한 후 수시로 참여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4차 수출바우처 신청·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중기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해 '2020년 제4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참여 희망기업을 8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에 기업 경영 정상화 및 대체 수출시장 발굴 지원을 위해 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이번 차수는 추가경정예산 약 135억원 규모로 360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